

心園 안병무 선생 22주기

추모기도회 및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출판기념 토크한마당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이강원
최순영
박지은
김용준
홍영호
정경원
백재철
황용연
산익상
이영희
정동배
최영복
이영미
김희현
김진호

유영민
김민준
김민준

일시_2018년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

오후 3:30 | 추모기도회

오후 4:00 |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출판기념 토크한마당

오후 5:30 | 공동식사 (향우실)

장소_향린교회 예배실 및 향우실

心園 안병무 선생 기념사업회

순서	1
참고 원고	2
심원안병무선생기념사업회 소개	10
심원안병무선생기념사업회 연혁	13

순서

추모기도회 | 3층 예배실 | 오후 3:30~4:00

인도	정원진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본회 총무
묵도	다같이
찬송	491장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기도	안수경 목사, 강남지역자활센터장, 본회 회계
성경봉독	인도자 로마서 12장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찬양	향린교회 성가대
설교	김명수 경성대 명예교수, 본회 회장 “몸신학”
축도	설교자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출판기념 토크한마당 | 3층 예배실 | 오후 4:00~5:30

사회	최형묵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본회 학술위원장
모두발언	이상철 한백교회 담임목사
패널	최순양 이화여대 강사 박지은 이화여대 강사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신익상 성공회대 연구교수 박재형 한국민중신학회 총무 정용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마무리발언	이정희 전 『기독교사상』, 『신학사상』 편집장

친교 및 공동식사 | 1층 향우실 | 오후 5:30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의

이상철 | 한백교회 담임목사

I.

심원 안병무기념사업회에서 2018년 민중신학 강좌와 민중신학 도서출판 지원 사업을 결정하였고, 그 즈음 분도출판사에서 <민중신학의 당대성>(가칭)이라는 제목으로 민중신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아우르는 서적출판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출판기획위원회는 화석화된 민중신학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도 유통 가능한 민중신학의 당대성을 드러내는 ‘오늘의 민중신학 총론’ 성격을 띤 책을 목표로 2018년에 열리는 젊은 민중 신학자들의 월레포럼 강좌 (한국민중신학회 월레포럼,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월레포럼)와 연동시켜 저술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우선 이 책의 외형적 특징은 가톨릭 계열의 분도출판사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필자 전원이 개신교 학자들로 구성된 채 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용단을 내려준 출판사에 감사드리며, 이것이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역사에서 좋은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은 지금까지 나왔던 민중신학 서적들 중에서 가장 젊습니다. 대부분의 필자들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혁명의 기운이 잦아들고 포스트모던이라는 광풍과 IMF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악령과 대면하면서 신학수업을 받고 신학적 사유를 성장시켜 갔던 필자들입니다. 70,80년대와는 다른 양상 속에서 전개되는 21세기 민중들의 고통을 젊은 필자들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투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전 시대의 민중신학 서적과는 다른 시각과 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II.

내용상으로 본서의 특징을 한 마디로 압축하자면 ‘민중신학 다시 읽기, 다시 쓰기’입니다. 이 책이 의도하는 바는 민중신학에 대한 설명, 혹은 민중신학의 진본과 역본을 가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중신학이 오늘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유통될 수 있는가, 입니다. 민중신학에 대한 기술(記述)이 아니라, 민중신학에 대한 해석(解釋)이 본서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객관적 세계보다는 민중신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필자들의 사유에 이 책은 오히려 주목합니다. 어쩌면 진리를 향한 과정이란 세계라는 객관적 진리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가능함을 드러내는 것 아닐는지요. 이런 이유로 본서에서는 ‘민중신학이 무엇이다’는 선언과 정의보다는 민중신학에 대한 참신한 해석과 상상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출판기획위가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책 제목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가 낙점되었습니다. 21세기 민중신학은 이데올로기가 선사하는 당위적이고 장엄한 목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작은 이야기들에 주목합니다. 민중신학이 여전히 동시대적이고 당대적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전체로 환원될 수 없는 부분들의 편에 서기를 자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번영을 담보로 차이의 제거에 공모하는 신학이 아닌, 은폐된 차이와 모순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신학! 근본적으로 사유하지만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사유의 깊이를 흠모하되 자기만의 방에만 갇히지 않는 신학! 신앙적 강박에 빠져 누군가를 교화시켜야 한다는 집착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신학적 이슈와 담론을 선점하면서 상품화, 권력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분명히 “No!”를 외칠 줄 아는 신학! 그것이 바로 온갖 쭉정이 같은 신학들이 난무하는 세계 속에서 교회와 사회를 지켜냈던 신학의 참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필자들의 생각은 고통을 예각화하려는 시도로 이 책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III.

1부는 ‘민중을 말하다’라는 주제 하에서 오늘날 특별하게 부각되는 민중 현상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중신학은 기본적으로 거대담론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작은 이야기들은 그것에 묻혀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순양이 작심하고 민중신학이 무지하여 놓쳤던 여성의 부재상황을 해체주의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1장). 성소수자의 문제는 시대의 과제이고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동성애 혐오의 메카로 군림하면서 온갖 호도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교와 동성애, 성서와 성소수자는 화해할 수 없는 평생선일까요. 박지은의 글을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청년의 위기는 시대마다 늘 있어왔

지만 오늘의 청년은 과거의 청년들과 달리 그들의 미래가 절망이라는 운명을 믿는 청년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윤동이 탄식하는 21세기 청년과 대면하는 민중신학자로 발언대에 섭니다(3장). 제국주의적 선교정책에서 벗어나 타자를 향한 사명과 환대로서의 선교를 제안하는 홍정호의 글은 제주 예멘 난민문제와 맞물려 21세기 민중신학적 타자 이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4장).

2부는 ‘시대를 말하다’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오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중신학적 문화비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경일은 사회구조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도 은거하며 작용하는 신자유주의의 유혹 방식인 ‘혼종성’, ‘공모성’, ‘영성’을 살펴보고, 신자유주의의 유혹을 떨치기 위한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영성을 ‘알아차림’, ‘함께 아파함’, ‘자기비움’ 세 차원에서 모색합니다(5장). 한국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갑과 을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증상이 되었습니다. 박재형이 어떻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민중신학을 연결시킬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6장). 민족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는 민중신학의 고유성이기도 했으나 민중신학을 스스로 제한하는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황용연이 어떻게 양자를 염두에 두면서 남북평화체제에 대한 상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7장).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쟁에는 테크놀로지의 문제, 자본의 문제, 문화와 가치와 윤리, 그리고 종교의 문제까지가 모두 투여됩니다. 신익상의 안내를 따라 실타래처럼 얽힌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민중신학적 대안에 대한 숙고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8장).

3부는 민중신학의 개념어들에 대한 현대적 해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恨)과 고통에 대한 발견에서 민중신학이 탄생했다 할 수 있을 만큼 고통은 민중신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용택의 글(9장)은 ‘고통의 현상학’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다듬고 그에 대한 잠정적 답변을 제출해보려는 시도입니다. 민중신학의 ‘공(公)’ 개념은 자본주의적 탐욕에 맞설 수 있는 대항논리이자 실천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중신학과 경제윤리를 아우르는 최형묵은 현저한 공의 사유화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촛불혁명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10장). 민중신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는 ‘민중메시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철이 현대 좌파 철학자들의 메시아론과 민중메시아를 엮으면서 새롭게 민중메시아를 독해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합니다(11장). 민중신학자들은 성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것이 전통적 성서해석과 무엇이 달랐고 왜 특별했는지를 이영미가 친절하고도 분명하게 말해줄 것입니다(12장). 한국교회는 정신의 무능과 제도의 병폐를 떨쳐내는 종교혁명을 벌일 수 있을까요? 교회의 삶에서 예수의 에토스를 되살려 낼 수 있는 민중신학의 지혜를 듣기 원한다면, 김희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13장).

사전 기획 단계에서 민중신학의 지성사적 통사에 대한 부분을 훑어야 되지 않나, 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민중신학의 동시대성에 더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본문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

만 민중신학이 출현하던 시절의 풍경과 그 이후 궤적에 대한 이해는 민중신학의 당대성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이므로 그 물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의거해 두 명의 필자를 본서로 초대하였습니다. 민중신학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이정희가 민중신학이 지녔던 근원적 문제의식을 책 중간에 선생 특유의 해박한 문체와 시적 아포리즘으로 보여줍니다. 김진호는 에필로그에서 세대론으로 품을 수 있는 민중신학의 내부와 세대론으로 품을 수 없는 민중신학의 외부를 드러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민중신학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재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까지를 아우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김진호는 이를 “운동의 신학”에서 “고통의 신학”이라 최종적으로 명명합니다.

IV.

이제 민중신학은 지난 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절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풍조 속에서 신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은 좌절과 번민에 빠지다가도, 여전히 신학함에 대한 믿음, 신학의 가치를 아끼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비틀거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민중신학이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신자유주의가 선사하는 냉소주의와 자본이 제공하는 쾌락과 욕망의 법칙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느라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민중신학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탄식의 증언자로, 감시자로, 그리고 고발자로 남을 것입니다. 민중신학이 어떤 권위와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편견도 아집도 없는 열린 신학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억하소서. 그대가 우리의 힘입니다.

나의 한 단락

최순양 | 이화여대

“맑스주의 진보론자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거리 속에서 ‘억압’을 보려했을 때도, 민중신학자들이 남성 민중을 주체로 형상화하면서 여성을 ‘어머니’로 읽으려했을 때에도, 들뢰즈나 푸코가 욕망과 권력으로 ‘전지구적’ 억압을 보려고 할 때에도 어김없이 그들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스피박은 이를 서발턴(subaltern)이라고 명했고 그들은 타자화되기가 너무도 쉬웠다. 그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재현하기 때문이었다. 그 사각지대는 ‘여성’ 이거나 비서구인종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페미니즘이 보려 하지 않는 성소수자이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레비나스를 묵상하면서 얼굴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나에게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이들의 불확실성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만 있는 고유성(singularity)을 보려 할 때 가능해진다.”

박지은 | 이화여대

“2018년 오늘, 성소수자들은 이미 사회가 만들고, 교회가, 기독교가 더 단단히 고정시킨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와 차별로 만들어진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그들을 정죄해 왔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몫이다. 언젠가 욕우당의 낙원가를 함께 부르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성소수자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닌 해방의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교회에 넘치기를 희망해 본다.”

정경일 | 새길기독사회문화원

“고정희가 묘사한 것처럼 악령은 우리의 밥그릇 안에 들어앉을 정도로 집요해서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악령의 여러 얼굴 중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

이다. 거울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한 채 우리를 바라보며 서 있는 악령에게 물어본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악령이 대답한다. ‘나는 너다.’ 그 순간 우리는 저항할 수도 도피할 수도 없게 하는 지독한 무력감과 마비감에 휩싸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악령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라는 자각이 오히려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유혹하는 악령이 우리의 얼굴을 절박하게 가지려는 이유는 악령은 우리의 동의와 공모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혹의 힘은 유혹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유혹당하는 자에게 있다. 유혹을 실현하는 존재는 악령이 아니라 악령들린 자다. 하비가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정의하는 신자유주의의 권능도 불안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동의와 공모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의 세력이 상식적인 것으로 믿게 만들어진 경쟁과 개인주의의 삶의 방식이 비상식적인 것임을 식별하는 순간, 신자유주의는 영원한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강요하고 우리가 동의한 특수한 역사적 신념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신자유주의의 악령은 힘을 잃고 떠날 것이다. 우리가 늘 마음챙겨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익상 | 성공회대

“‘잔여-주체’는 보편-주체를 무효화하는 주체, 효력정지시키는 주체다. 보편의 주체화 요구를 내파하며 탈주체화하는 역량이다. 포스트휴먼적 상황에서 이 주체는 자본주의적 인본주의가 그 경계를 허물며 확장해온 보편-주체의 경계면을 따라서 함께 변화한다. 자본주의적 기획 속에서 자연과 초자연과 이들 사이의 매개로서 인공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자 포스트휴먼적 주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자연, 초자연, 인공물의 3자는 평등한 보편적 인간을 말하던/말하는 서구의 근대적 인본주의의 인간상 속에서 이 기획의 ‘벗어남’이 담고 있는 이중성의 결을 따라 포스트휴먼으로 통합되며 집결하고 있다. 이 현상은 일차적으로 비오스적이며, 따라서 조예-생명의 불확정성을 내장하고 있다. 물질적 에너지를 물질/비물질을 넘나드는 정보로 치환하는 과학기술문명의 시대에 조예 불확정성의 ‘잔여-주체’는 관계망을 미덕으로 삼는 낭만적인 대응에 안주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문명을 단지 부르주아의 악덕으로 치부하며 윤리적 비판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방식으로 민중(사건)을 유지하려 할 수도 없다. 포스트휴먼적 ‘잔여-주체’는 과학기술문명의 현실 한복판에서 ‘연결’과 ‘벗어남’의 중립적 사용이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한편, 민중(사건)의 지평이 과학기술문명을 배제한 채 벌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주체다.”

“아니, 쫓겨나는 이들을 우리는 이제 민중이라 부르려 한다. 그 쫓겨남의 사건은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정태적인 민중 이해를 수정하고 민중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로 확장하도록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쫓겨남은 단순히 내몰리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도시를 포함한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균열을 일으키고 그 균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공간을 만들도록 이끌고 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쫓겨남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민중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쫓겨남의 사건 속에 관여하고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해방 공간이 창조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문 밖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우리는 쫓겨남의 사건 가운데서 민중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쫓겨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성문 밖’은 이 시대의 민중 예수를 만나고 그 민중의 메시아적 사건에 참여하게 하는 창조적 균열이며 해방적 공간이 된다. ‘성문 밖’ 그곳은 도시라는 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그 도시의 가치들로부터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쫓겨나는 민중’의 자리(Platz)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적 사건’의 공간(Raum)이 된다.”

“민중신학에서 고통이 중요한 이유는 고통이야말로 민중을 객관화·대상화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생성의 흐름 가운데서 우연적이고 비결정적으로 출현하는 ‘사건’ 그 자체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적 실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중신학이 민중을 고통의 주체, 보다 전통적인 어법으로는 ‘고난의 담지자’라 규정해왔다는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민중신학의 역사에서 민중을 고통당하는 이들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단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통의 관점에서 민중을 이해한다는 것은 민중론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우리는 어떤 인간의 삶은 다른 이들의 삶보다 더 취약하고 따라서 어떤 인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더 슬픔이 되는 그런 조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런 조건에 반대할 수 있다”(버틀러, 2008: 60)는 사실이다. 민중신학에서 민중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주체를 가리킨다. 제도적 틀 안에서 규범적 기대와 어긋나는 현실의 문제들을 그야말로 폭력으로 인지·지각·체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 어떤 사회적 존재의 이름이 ‘민중’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것, 즉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상처에 대해 성찰하고, 상처를 배포하는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튼튼하지 못한 성긴 국경, 예기치 못한 폭력, 탈취, 공포 때문에 누가 어떤 식으로 고통을 겪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같은

글, 12). 그럴 때 사회적 고통은 민중적 존재의 삶, 즉 사회적 고통에 더욱 취약한 존재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작동 원리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민중은 사회적 고통에 특히 취약한 삶, 또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구조와 제도와 관행들 내부의 균열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민중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사회 자체에 대해 갖는 내적인 차이, 사회가 사회 자체의 규범이나 규칙, 이데올로기, 정당성과 갖는 자기모순을 지시하는 기표이다.”



心園 안병무 선생 기념사업회 소개

목적

본회는 심원 안병무 선생의 뜻을 기리는 우인과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분의 삶과 신앙, 신학과 사상을 널리 펼치고 후학들을 육성할 목적으로 1997년 6월에 설립되었다.

고문 및 운영위원

고문 | 손규태, 여성숙, 조병환, 홍창의
운영위원 | 강맑실, 강원돈, 김경호, 김달수, 김명수, 김성재, 김진호, 김희현, 박경미, 박재형
서진한, 송기득, 안수경, 안재권, 이상철, 이영숙, 이해동, 임태수, 정원진, 조현정
채운석, 최순양, 최영실, 최형묵, 홍영진, 황성규

임원

회장 | 김명수 총무 | 정원진 회계 | 안수경 학술위원장 | 최형묵 서기 | 김희현

2018년 주요 사업

가. 장학사업

- ▷ 국내 장학사업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 중 ① 민중신학으로 논문을 쓸 학생이나 ② 생명선교연대(옛 민중교회운동연합) 소속 교회에서 봉사하는 학생 1인을 선정하며 학기당 250만원 지급
- ▷ 해외 장학사업 : 인도 Serampore Colleges의 추천받은 달릿 출신 신학생에게 매년 미화 \$1,000 지급

| 장학금 수혜자 명단 |

한국(괄호는 학기)

2005년 마정길(1), 임하늘(2), 고상균(2)
2006년 고상균(1), 고상균(2)
2007년 이승호(1), 조준희(2), 이영숙(디아코니아)
2008년 조준희(1), 임모세(2), 한문덕(연대)
2009년 이승호(1), 이승호(2), 임보라(해외연수)
2010년 송승현(1), 최태진(2), 정란경(이대)
2011년 최태진(1), 유승태(2), 정란경(이대)
2012년 유승태(1), 이지선(2)

2013년 김영수(1), 허진혁(2)
2014년 차민호(1), 차민호(2)
2015년 차민호(1), 김셋별(2)
2016년 김셋별(1), 동윤진(1)
2017년 동윤진(1), 이광희(2)
2018년 권민수(1), 윤정욱(1)

인도

2010년 Kishor Ashok Gaikwad (Bishop's College)
2011년 Kishor Ashok Gaikwad (Bishop's College)
2012년 Upendra B. Mhankale (Bishop's College)
2013년 Upendra B. Mhankale (Bishop's College)
2014년 Raj Bharrath Patta (SCM General Secretary)
2015년 D. Christy Gnanadasan (United Theological College, Bangalore)
2016년 P. Mariya (Tamilnadu Theological Seminary, Madurai)
2017년 Elizabeth Roselind (TTS), Shobha Muniyappa (UTC)
2018년 Berachah Andy Dokiburra (Eastern Theological College)

나. 일본어판 안병무저작선집 출간현황

▷ 출간

- [별권] 김남일, 『안병무 평전 - 성문 밖의 예수를 말하다』(2016.6. 출간)/김충일 번역
- [1] 『민중신학 이야기』(2016.6. 출간) / 번역: 김충일 / 해제: 최형묵
- [2] 『역사와 해석』(2017.12. 출간) / 번역: 김충일 / 해제: 박경미

▷ 2018년 현재 진행중

- [3] 『갈릴래아의 예수』(2018. 하반기 출간예정) / 번역: 김충일 / 해제: 이재원 완료
- [4] 『민중신학과 성서』(2018. 하반기 출간예정) / 번역: 김충일 / 해제: 김명수 완료

▷ 출간 예정

- [5] 『민중신학과 민중』(*『선천택』포함, 2019, 출간예정) / 번역: 김충일 / 해제: 김진호 완료
- [6] 『민중과 교회』(2019, 출간예정) / 번역: 김충일 / 해제: 김희현 완료
- [7] 『공(公)과 민중신학적 상상력』(2020, 출간예정) / 번역: 김충일 / 해제: 정경일 예정
- [8] 『민중신학적 사유의 무늬 1』(2020, 출간예정) / 번역: 김충일 / 해제: 이정희 예정
- [9] 『민중신학적 사유의 무늬 2』(2021, 출간예정) / 번역: 김충일 / 해제: 이정희 예정
- [10] 『예수의 이야기: 성서의 비유풀이』(2021, 출간예정) / 번역: 김충일 / 해제: 미정

다. 『민중신학 이야기』 영문판 출간

출판위원장으로 양권석 교수 위촉하여 심범섭 박사에게 번역 의뢰하여 완료한 후 (2018년 2월), 편집위원(김희현, 양권석, 이상철, 최순양)의 검토를 거친 다음(2018년 3월), 박원기 박사의 윤문을 마쳐 (2018년 7월), 현재 SBL출판사로 넘겨져서 관련 학자들의 검토 및 출판 작업이 진행 중. 2019년 초 출판된 후 인도 벵갈로에서 출판기념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

라.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출판 후원

소장 민중신학자들이 주도하는 포럼을 1년간(2018년) 지원하고, 그것을 엮어낸 기획서 이상철·이정희 외 지음,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아시아신학총서 11(분도, 2018)의 출판을 지원함.

마. 홈페이지 아키브 재정리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일정은 心園 안병무 아키브 참조 | <http://www.simwon.org>



역대 회장

- 1대 홍창익(1997년-2000년)
- 2대 황성규(2001년-2012년)
- 3대 조헌정(2013년-2015년)
- 4대 김명수(2016년-현재)

추모 강연

- 제1회 안병무의 예수이해 | 황성규 교수
- 제2회 민중신학의 생명 | 기타 겐이치(木田獻一) 박사
- 제3회 안병무는 그리스도인인가 | 송기득 교수
- 제4회 심원 안병무의 교회이해 | 손규태 교수
- 제5회 안병무의 體現의 신학 | 김경재 교수
- 제6회 안병무의 통일사상 | 홍근수 박사
- 제7회 아시아 신학들 중의 민중신학 | 서광선 교수
- 제8회 민중의 삶에서 성서읽기 | 김성재 교수
- 제9회 지구화시대의 민족·민중·평화 (서거10주년 추모국제심포지엄)
| 손규태 교수, 박종화 박사, 볼커 퀴스터(Volker Küster) 교수, 가야마 히로토(香山洋人) 사제
- 제10회 안병무의 민중메시아론 | 김달수 교수
- 제11회 민중신학의 현대사적 의미와 과제 | 한완상 박사
- 제12회 지성소 사건과 갈릴리 예수 공동체 | 김경호 목사
- 제13회 심원 안병무 선생 회고-심원선생을 기린다 | 정양모 신부
- 제14회 心園 안병무 선생 서거 15주기 추모 음악회 “너는 가능성이다” 개최
- 제15회 심원 안병무 선생의 정치와 그의 이상 | 김상근 목사
- 제16회 『21세기 민중신학-세계의 신학자들, 안병무를 말하다』 출판기념 국제심포지엄
발제 및 논평 | 페르난도 엔스(Fernando Enns) - 김희현
김진호 - 가야마 히로토(香山洋人)
김성경 - 최형묵
- 제17회 [토크 한마당] 하늘도 땅도 공이다
발제 | 최형묵 목사
패널 | 김기석 목사, 김응교 교수, 백소영 교수
- 제18회 안병무의 예수사건 이야기 — 열려 있는 해석학적, 실천적 지평 | 이재원 교수

제19회 [心園 안병무 선생 서거 20주기 추모 심포지엄] 기로에 선 한국교회와 민중신학
발제와 토론 | 서광선(이화여대 명예교수), 오세욱(생명선교연대 부회장), 우성구(생명선교연대 총무),
이숙진(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오세요(예수살기 간사)

제20회 평화를 위한 한·일 그리스도인의 연대와 민중신학 | 치바 노부요시(千葉宣義)

추모 강좌

제1회 안병무 신학사상의 계보-유영모와 함석헌 중심으로 | 박재순 박사
제2회 동양사상의 지평에서 본 안병무의 생애와 신학 | 김명수 교수
제3회 한(恨)의 치유 | 이재훈 박사
제4회 언제까지 우리의 흘린 피를 신원하지 않으시렵니까? | 이병학 교수
제5회 심원 안병무의 ‘여성’ 이해-민중신학의 모태가 된 선천덕 | 최영실 교수
제6회 삼원 안병무 선생의 윤리사상 | 강원돈 교수
제7회 오직 문학만이 화해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 | 풀커 퀴스터 교수

기타 강연, 심포지엄

2011년 15주기 추모 심포지엄-MB정권 이후 동북아시아의 평화 실현과 살림의 정치
발제 | 강원돈, 김연철, 이재정
2012년 성장 시대의 종언 | 김종철 선생
2013년 [심원 강좌] 21세기와 민중, 그리고 신학적 상상력 (총 6강)
강사 | 우진성, 김희현, 최형묵, 이숙진, 구미정, 김진호
2014년 [심원 학당] 전환. 21세기 민중신학을 위하여
-민중신학의 현재성 구축(혹은 해체)을 위한 몇 가지 발칙한 상상들! (총 6강) | 강사 이상철 박사
2015년 심원 안병무 신학캠프 (1박 2일) | 김진호, 김희현, 조현정
2015년 안병무 저작선집 일본어판 출판을 준비하며 함께 하는 한일 신학 좌담회
가야마 히로또(香山洋人), 이은자, 絹川久子, 김진호, 조현정, 최형묵
2016년 안병무 저작선집 간행기념 심포지엄 : 21세기의 민중신학-한일간 신학적 대화를 향하여
아라이 사사쿠(荒井獻), 가야마 히로또(香山洋人), 최형묵, 박경미
2016년 일본어판 안병무저작선집 해제논문 발표회 (총 2회) 최형묵, 박경미, 김명수
2017년 일본어판 안병무저작선집 해제논문 발표회 (총 1회) 김진호, 김희현

심원 콜로키움

제1회 역사의 예수 담론의 영토성 | 김진호 목사
제2회 공공성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문제 | 손규태 교수
제3회 생명살림과 종교간 대화 | 김경재 교수
제4회 생명과 평화를 향한 길 | 김용복 교수
제5회 동양사상과 안병무 | 김명수 교수
제6회 초기 안병무가 바라본 서구신학의 빛과 그림자 | 전철 박사
제7회 데기-되기: 『선천덕』에 나타난 안병무의 ‘민중구원론’ 다시 읽기 | 구미정 박사
제8회 체제전환과 도덕 | 김동진 박사
제9회 과정사상에서 본 안병무의 사건의 신학 | 김희현 박사

제10회 심원 안병무의 성서주석과 설교 | 우진성 박사
제11회 지구화 시대의 대안주체: 지구촌 시대의 유령으로서 주체 | 박일준 박사
제12회 안병무의 인권사상 | 최형묵 박사
제13회 잠언 8장의 여성 지혜와 선천덕의 해석학적 대화 | 박혜경 박사

심원 청년신학 포럼 후원

출판

1997년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와 함께 하는 예수』, 『생명을 살리는 신앙』
1998년 『불티』, 『구걸하는 초월자』, 『역사와 해석』, 『갈릴래아의 예수와 안병무』(추모문집)
1999년 『기독교의 개혁을 위한 신학』
2001년 『한국 민족운동과 통일』
2003년 『안병무 신학사상의 맥 I』(박재순 외)
2004년 『Jesus of Galilee』
2006년 『안병무 신학사상의 맥 II』(김명수 외), 『마가복음의 예수와 민중』(풀커 퀴스터),
『심원 안병무 논저 총목록집』, 『안병무 저작 선집 I, II, III』
2011년 『안병무의 신학사상』(김명수)
2013년 *Reading Minjung Theolo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Selected Writings*
by Ahn Byung-Mu and Modern Critical Responses
및 한국어 번역본 『21세기 민중신학—세계 신학자들, 안병무를 말한다』

심원 기념 저술 및 출판 지원

- 저술비 500만원과 출판지원비 300만원 지원

제1회(2009년) 이영미 교수, “하나님 앞에 솔직히, 민중과 함께: 애가서에 대한 성서신학적, 민중신학적
해석” (저술 및 출판 지원)
제2회(2010년) 전철 박사, “민중신학과 현대사상의 모험” (저술 지원)
제3회(2011년) 김희현 박사, “민중신학과 범재신론-민중신학과 과정신학의 대화” (저술 및 출판 지원)
제4회(2012년) 오승성 박사, “하버마스과 민중신학-개혁신앙적 민중신학을 위하여” (저술 및 출판 지원)

추모 영상

2006년 10주기 기념 <안병무의 삶과 사상> | 탁현민 교수 제작
2011년 15주기 기념 <안병무의 삶과 신학> | 로로브레인 제작
2016년 20주기 기념 <안병무의 삶과 신학> (내레이션 문성근 재더빙) | 로로브레인 제작

추모 노래

2011년 <너는 가능성이다> (안병무 · 류형선 작사, 류형선 작곡)



心園안병무선생기념사업회

